17년 소모적 논란 종지부…도심 균형발전 날갯짓

광주시청~광주역까지 총 17㎞ 2023년 공사 완료
예산 조달·부실공사·교통 혼잡 최소화 등 과제도

도철2호선 건설 일정·과제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이하 도철 2호선)이 17년만에 첫 삽을 뜨게 됐다. 도철 2호선 건설 사업은 착공하기까지 시장이 바뀔 때마다 건설 방식이 재검토되고 건설 여부를 둘러싼 소모적인 찬반 논쟁이 반복됐다.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건설을 결정하며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사업 추진의 동력을 마련했다.

◇논란 종지부

도시철도 2호선은 1994년 3월 1호선과 함께 정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첫발을 뗐다. 1996년 시작된 1호선(2004년 4월 개통) 건설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2002년 10월 박광태 전 시장 재임 시절 길이 27.4㎞의 지상고가 순환형의 기본계획을 결정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건설 시기는 2008~2019년이었지만 노선 논란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다. 2010년 취임한 강운태 전 시장이 건설 방식 재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시는 2011년 11월 당초 계획을 바꿔 2022년까지 3단계에 걸쳐 41.7㎞를 건설하기로 기본계획을 변경했다.

2013년 12월에는 지상 고가에서 땅을 얕게 파는 지하 저심도 방식으로 바꿨다. 하지만 2014년 7월 취임한 윤장현 전 시장이 다시 건설 재검토 방침을 밝히고 여론조사를 하기로 하면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같은 해 12월 우여곡절 끝에 원안대로 건설하기로 해 논란이 종식하는 듯했다.

그러나 푸른길 훼손 방지 대책 등으로 사업비가 늘어난다며 2015년 3월 기본설계 용역이 중단됐고 이어 11월 트램, 모노레일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시는 41.9㎞의 순환선을 저심도 방식으로 3단계로 나눠 2018~2025년 짓는 계획을 확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기본계획 변경 신청 등 사업에 속도를 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는 지난해 7월 취임한 이용섭 시장이 공론화 방식을 통해 결정하기로 하면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공론화 절차가 시작됐다.

광주시민 2천500명을 상대로 한 1차 표본조사로 꾸려진 시민참여단 250명이 숙의 과정을 거쳐 찬성 78.6%, 반대 21.4%의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다. 공론화위는 찬성의견을 토대로 권고안을 이 시장에게 냈고 이 시장이 공론화 결정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논란은 마무리됐다.

◇공사 일정

도철 2호선 1단계 공사구간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광주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조선대~광주역까지 17㎞이며, 정거장 20개소와 차량기지 1곳이 건설된다.

지난해 11월부터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고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에 이어 국토교통부와 사업계획 승인을 마무리하며 착공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1단계 착공은 당초 6월로 계획됐지만, 공사 기간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겹치면서 대회가 끝나는 8월 18일 이후로 바뀌었다.

2단계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2020년 하반기 착공해 2024년 개통할 예정이다. 2단계는 광주역~전남대~일곡지구~본촌~첨단지구~수완지구~운남지구~시청을 연결하는 20㎞ 구간이다.

1단계와 2단계가 연결돼 순환선으로 운영된다. 남광주역과 상무역이 환승역이다.

2025년 개통 예정인 3단계는 지선 개념으로 백운광장~진월~효천역을 연결하는 4.84㎞ 구간이다. 3단계의 행정절차는 내년에 시작되며 2021년 착공할 계획이다.

◇전망

도철 2호선은 저심도 경전철 방식으로 42㎞ 순환선으로 건설된다. 기존 도철 1호선과 시내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연결할 경우 광주지역 대부분을 30분내로 이동 가능하게 된다.

시는 도철 2호선 건설로 대중교통 체계망을 구축해 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각 지역별 역세권 중심의 주거단지 개발과 상권 형성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하게 되어, 도심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철 2호선 착공을 계기로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도철 2호선 건설공사에 지역민 고용, 지역 전문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지역에서 생산된 건설자재·장비사용 등을 독려할 방침이다.

◇과제

차질없는 국·시비 예산 조달과 공사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과 불가피한 도심 교통혼잡 최소화 등은 사업 성공의 관건이다.

사업비 적기 집행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확보도 필수 조건이다. 시는 올해 국비 250억원을 확보했으며 내년 국비 사업비는 600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시비도 전체 사업비 중 8704억원에 달하는 만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순조롭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사에 들어가면 안전사고 예방과 도심 교통혼잡을 최소화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시는 교통대책 특별대책단을 구성해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공사현장에 전문가를 상주시켜 공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혼잡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안전·품질·공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수시로 안전점검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애란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19일 오전 접견실에서 김기정 씨에게 섬 페스티벌 총감독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제1회 섬의 날 기념 섬 페스티벌은 '만남이 있는 섬, 미래를 여는 섬' 을 주제로 오는 8월 8일부터 10일까지 목포 삼학도 일원에서 열린다. /전남도 제공

8월 8일 섬의 날 '한여름 밤 축제로'

도, 목포 삼학도서 첫 국가기념식

오는 8월 8~10일 목포 삼학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1회 섬의 날 국가기념식 행사를 앞두고 전남도가 기념행사 총감독을 위촉하는 등 행사 준비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전남도는 19일 김영록 지사가 주재하는 섬의 날 행사 준비 상황 보고회를 열고, 기념행사 총감독으로 김기정 감독을 위촉했다.

김 감독은 보령머드축제·예천세계곤충엑스포·금산세계인삼엑스포 등을 맡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주목받았다.

행사 주제는 '만남이 있는 섬, 미래를 여는 섬' 으로 정하고 한여름 밤 축제로 치른다는 구상이다.

기존 단순 기념식 위주로 진행되는 국가기념일과는 달리 섬 주민은 물론 국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형 '썸 페스티벌(한여름 밤의 축제)' 형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국가 기념행사, 섬 전시회장 운영, 부대행사 등으로 나눠 열리며 국내외 주요 인사, 정부 부처 인사, 국회의원 등 1,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 끝단 섬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주제 퍼포먼스와 섬 발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등에 대한 포상도 이뤄진다. /정근산 기자

광주수영대회 성공 기원 릴레이 영상 '눈길'

조직위, 총리부터 한류스타까지 페북에 공개

이낙연 총리부터 한류스타까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조직위 페이스북(공식계정)을 통해 국내 저명인사들의 수영대회 성공 개최 기원 릴레이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번 릴레이 영상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직위원장인 이용섭 광주시장, 홍보대사 박태환, 안세현 선수, 국악인 오정해, 한류스타 성훈 등이 참여했다. 축구선수 기성용을 비롯해 배우 박신혜, 가수 송가인 등도 메시지를 통해 수영대회 성공 개최를 응원했다.

수영대회 홍보대사인 이낙연 총리는 "광주수영대회가 꼭 성공하리라 믿는다"며 "많은 국민께서 올 여름 광주에서 펼쳐지는 세계수영축제를 만끽하며 즐겨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성용 선수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번 수영대회를 위해 열심히 훈련한 선수들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며 "국민들도 대회에 관심 가져주셔서 선수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응원했다.

조직위는 이번 수영대회 성공 기원 메시지를 조직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9일부터 공개하며, 이후에도 국내 저명인사들의 영상 메시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황애란 기자

'광주 5미에서 할랄까지…' 선수촌 음식 맛보기

조직위, 100여명 초청 선수촌 급식 품평회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에서는 광주 5미에서 할랄음식까지 급식으로 제공된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19일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미디어촌 식당에서 급식 시식·품평회를 열었다.

지난 1차 품평회 지적사항을 개선해 두번째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조영택 조직위 사무총장을 비롯해 조직위와 국제수영연맹(FINA) 관계자, 광주지방식약청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날 품평회에는 광주체고 수영선수 41명이 참석해 선수촌 급식을 직접 맛보고 평가했다.

수영대회 선수촌과 미디어촌에서는 100가지 음식을 하루 세끼 선보일 예정이다. 한식, 중식, 일식, 유럽식 등 각국 음식을 비롯해 이슬람 문화에 맞게 조리된 '할랄' 음식도 제공한다. 한식 중에는 광주에서 개최하는 대회의 특성을 반영해 육전, 떡갈비, 주먹밥 등 '광주 5미' 음식도 포함됐다.

선수촌 식당은 급식 외에도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위한 핫도그, 견과류, 바나나, 주스 등으로 구성된 고칼로리 간식도 경기장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대회 급식은 급식 부문 공식 후원사인 '아모제 푸드'로, 평창동계올림픽·인천아시안게임·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등에서 급식을 공급한 경력이 있는 회사다.

조직위는 이날 2차 급식 시식·품평회에서 개선점을 최종 점검하고, 대회 개막을 앞둔 오는 7월 5일에는 언론사 등 300여명을 초청해 마지막 급식 준비사항을 최종 점검한다. /황애란 기자